

이혼한 여성 한부모들의 자립경험

Divorced Single Mothers' Experience of Self-Independence

성정현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JungHyun Sung(sung4381@naver.com)

요약

본 연구는 이혼을 경험한 여성 한부모들의 자립 경험을 탐색하여 한부모들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사회복지실천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미 자립을 한 10명의 이혼여성을 대상으로 자립 및 적응 경험을 심층면접 하였다.

연구결과, 참가자들은 이혼 당시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과 실망감, 우울 등의 심리·정서적 어려움과 자녀 양육의 어려움과 경제적 문제, 주거 빈곤을 경험하였으며, 이런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임시직을 경험하고 지속적인 정보탐색 및 고등교육 과정의 이수, 자격증 취득 등 경력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였고 자녀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정서적으로는 이혼을 수용하고 자녀와 전배우자 간 관계를 재정립했으며, 생활과 자녀관계에 대해서는 자아통제력을 행사하였다. 또 원가족의 승인과 한부모 자조모임, 지역사회지지 망을 확보하였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장기 계획과 목표를 수립하여 매진하는 삶을 삼으로써 희망과 기대를 놓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자립 및 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제언하였다.

■ 중심어 : | 이혼 | 한부모 | 자립 | 자아통제력 | 미래 비전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life experience of divorced mothers' self-independence and to search for ways of helping their self-independence in social welfare practices. Researcher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10 divorced mothers about life experience of psycho-social and economic spheres, child care, job experience, etc.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single mothers had experienced psychological distress of depression, feeling of reject and betrayal, difficulties in child care, and so on. They had experienced of various jobs to cope with economic difficulties. After divorce, they had explored informations and support resources to receive help for their children, and they endeavored to acquire a certificate of qualifications. They accepted their divorces in themselves and they rebuilt relationships with ex-husband, excised perceptions of self-control in finances and child discipline spheres. And they established of mid-to long-term life goals, and did not abandon their dreams and visions in despite of their poor qualities. Based on these results of this study, the ways of social welfare practices to help and support single mothers' self-independence were suggested in the conclusion part of this study.

■ keyword : | Single Mothers | Divorce | Self-Independence | Self-control |

I. 서론

본 연구는 이혼을 이유로 한부모 가족이 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심리사회적 자립을 이룬 것으로 판단되는 여성 한부모들의 삶과 자립 경험을 탐색하여 이혼한 한부모들의 자립 및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사회복지실천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1998년 경제위기 이후 조이혼율이 약 1.1%이던 것이 2003년도에는 약 3.14%로 급증하였다가 이제는 약 2.1~2.3% 수준에 머물고 있다[1]. 2000년대 전후로 이혼율이 급증하면서 이슈가 되었던 가족의 위기 혹은 해체 대 가족의 변화 담론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 가운데 이혼 후 발생하는 심리사회적,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이혼숙려제도와 양육비이행 관리원이 만들어지는 등 사회적으로도 결혼 및 가족 관련 변화가 있어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몇 년 간 이혼율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혼유지의 조건이 개선되었다거나 이혼 요인이 감소하였기 때문이기 보다는 결혼율이 감소하고 또 가족형성의 통로가 다양해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 또 이혼율의 증감 자체보다는 이혼자들 내부에서 동거기간이 긴 숙년이혼의 비율이 급증하거나 국제결혼 가족의 이혼이 증가하는 등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도 가족변화 면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결혼 및 가족과 관련된 인식의 변화와 가족의 다양화, 복잡화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은 이혼 후 한부모가족의 적응 및 자립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다. 2000년대 이후 이혼한 여성들의 경우 과거의 이혼여성들보다 학력이나 직업경력 등의 면에서 좀 더 좋은 인적자원을 갖고 있는 세대이고, 또 이혼 후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한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적 어려움과 자녀의 돌봄 및 교육의 문제로 적응 및 자립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언하면, 이것은 이혼을 경험한 한부모 가족이 자립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사회경제적 장애나 불리를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혼을 경험한 한부모가족이 적응 및 자립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어떻게 자립해나가는지 알아볼 필

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혼 이후 자립한 당사자들의 자립경험을 탐색하여 자립 및 적응과정에서 주요하게 작용한 요인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를 통해 이혼한 한부모들의 자립을 돕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와 건강

1.1 심라정서적 위기와 스트레스

이혼은 스트레스 항목 중 가장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사별 다음의 순위에 속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긴장을 유발하는 사건이다. 이혼자들은 대부분 이혼을 전후로 수년 동안 정서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이혼 이후에도 초기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스트레스로 곤혹스러워한다. 이혼 후, 한편으로는 자유로움 증대, 개인적인 성숙의 느낌, 자녀와의 관계 개선 등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이혼 초기에는 정서적인 혼동과 우울, 불안정한 정서 상태를 경험하며, 때로 깊은 우울을 느끼거나 자존심이 저하되는 현상을 보인다. 또 외로움과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의 부정적인 변화 등을 경험할 수 있다[2].

또 이혼 후 생활의 변화가 크고, 그 변화가 2년 이상 증가할수록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 블룸 등(Bloom and Asher, White, 1978)에 따르면, 정신과 환자 중에는 이혼 혹은 별거한 사람들의 비율이 높고, 입원율도 다른 기혼자나 사별(死別)자, 독신자보다 더 높다[3]. Pearlin과 Schooler(1978)의 연구에서도 이혼과정에서 경험한 스트레스는 다양한 신체적 건강문제와 연관되고 있으며, 조기 사망률이 높고 입원을 하거나 혹은 급성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건강 문제는 성별과 이혼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남성은 좀 더 만성적으로 신체적 문제를 나타내는 반면, 여성은 좀 더 급성적인 신체적, 정신적 건강문제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2]. 즉, 이혼과 관련된 건강 문제에는 이혼 이전의 생활양식뿐만 아니라 이혼 이후의 스트레스, 그리고 건강관련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1.2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이혼 후에는 부부 혹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되었던 양부모가족이 독신의 싱글가족이나 부(父) 혹은 모(母)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가족구조가 변화된다. 따라서 사회적·경제적 지지의 상실과 아내와 어머니 혹은 남편과 아버지의 역할 수행에서의 변화, 그리고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 변화, 주거지의 변화 등 많은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이혼여성은 자신과 아이들의 생존을 보장해야 하는 가장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 자녀 양육 및 훈육에 대한 단독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중 이혼여성들이 이혼 초기에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는 자녀양육의 문제이다. 하지만, 이혼한 부모들은 이혼을 생각하고 별거를 시작할 때부터 자녀를 양육하고 훈육하는 문제에 대해 무능력을 경험하거나 혹은 이전에 비해 좀 더 불안해하고 우울해하며 화를 잘 내고 거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4]. 이것은 이혼 전후의 특징적인 정서인 우울로 인해 자녀들의 욕구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그들을 편안하게 대하는 능력이 일시적으로 감소되기 때문인데[5], 이런 어려움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될 때 더욱 심각해지는 경향이 있다.

또 사회적 관계망을 포함한 생활환경의 변화로 부적응을 경험하기도 한다. 여기서 사회적 관계망은 원가족(family of origin)과 친구, 전배우자, 동료들로 구성되는 일종의 지지 망(support network)으로 이혼 후 적응을 매개하는 기능을 한다. 보통 이혼 전에 가족과의 관계가 친밀했던 경우는 이혼 이후에도 가족과의 만남이나 연락이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혼 이전에 형성된 사회적 관계는 이혼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이혼을 결정하는 시기 동안은 친구와의 관계가 빈번하고 이혼결정과 관련된 정보적, 정서적 지지가 많이 이루어지지만, 이혼한 지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경과되면 대부분 기존 친구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중단되며, 사별하거나 혹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혼여성들, 독신의 싱글여성들로 구성된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이들은 정서적인 편안함을 느끼고 쉽게 공감대를 형성하며, 가족보다 더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경험을 한다

[6]. 그러므로 이혼자의 적응을 위해 새로운 친구를 빨리 찾고 관계망을 개발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이혼자의 사회적 관계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또 다른 영역은 전배우자와의 관계이다. Weiss(1975)는 이것을 전배우자에 대한 애착(attachment)으로 명명하였는데[7], 지금까지의 임상문헌에서는 전배우자에 대한 양가감정이 클수록 적응은 더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8]. 또 만남의 성격이 긴장되고 갈등적인 경우는 애착이 커서 이혼부적응을 낳는 반면, 전배우자에 대한 애착이 적어 만나지 않거나 감정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7]. 하지만, 아직까지 이혼한 배우자간의 적합한 관계가 명료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그 상호작용도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이혼이 증가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혼여성의 경제적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다. 2010년도의 “가계 동향 조사”를 분석한 결과, 모자가구의 빈곤율은 최저생계비 기준 15.6%, 중위소득 50%기준으로는 25.1%로 나타나 양부모가구의 약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9]. 또 전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약 60%가 여성이지만, 이들 대부분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가구이며, 한부모는 대부분 비정규직에 종사하면서 지속적으로 일을 해도 가난한 근로빈곤층을 이루고 있다. 이들은 장시간 노동, 저임금, 낮은 인적 자본과 탈기술화로 인한 반복되는 실업, 질병,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급등, 주거비 인상과 같은 만성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빈곤으로 인한 공공부조와 저임금의 장시간 노동의 경계에서 출타기를 하는 삶의 한가운데 놓여 있다[10][11].

게다가 많은 한부모들이 생계비뿐만 아니라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 주거비 등으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이 처해있다. 과거보다 아동보육의 여건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직장에 있는 동안 자녀를 돌봐줄 사회적 지지 망이 결여되어 여전히 자녀를 혼자 두는 가정이 많다. 또 자녀양육에 들어가는 실질적 비용에 있어서도 양부모 가족에 비해 현저히 낮아 자녀양육의 질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혼여성들이 빈곤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이유는 이혼 이전에도 빈곤했기 때문인 점과 이혼을 할 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인 점을 들 수 있다. 또 국가의 서비스 부족도 원인이 되고 있으며[12], 여성의 낮은 임금율과 노동시장에서의 성차, 고용에서 작용하는 아동의 문제, 빈약한 공공수혜의 문제 등과 같은 사회구조적 문제들이 이혼여성의 적응에 대한 부차적인 장애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립을 방해하고 있다.

2. 이혼여성의 적응과 자립

자립의 사전적 정의는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종속되지 않으며, 스스로의 힘으로 섬'을 뜻한다. 이 정의는 자립을 정의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 자립을 어느 한 시점에서 평가할 것인지 혹은 하나의 과정으로 볼 것인지와 함께 자립에서 중요한 개념인 의존이나 종속 혹은 독립의 이슈를 담고 있다. 먼저 시점 혹은 과정과 관련하여, 자립을 과정이나 그 경험 보다는 현재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홀로 서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분야에서 자립은 홀로 선 상태 혹은 한 시점의 사건으로 다루기보다는 자립 과정과 준비의 단계들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13]. 미혼양육모의 자립경험에 관한 연구에서도 자립은 모와 자녀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정신적, 경제적 능력을 갖추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지속적인 삶의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14]. 이렇게 과정을 중시하는 이유는 자립이 특정 조건이 갖춰질 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성장이라는 측면과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이런 과정적 특성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자립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자립에서 중요한 것은 자립의 철학이자 구성 요소 혹은 대상과 관련된 것으로서 누구에게 혹은 무엇을 의존하고 종속되며, 또 무엇으로부터 독립할 것인가의 이슈이다. 지금까지 자립을 언급할 때에는 보통 경제적 자립을 가장 많이 다루어 왔지만, 사실 자립은 변화에 대응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에 대한 신뢰감, 그리고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타인과 협력하고 의사소통 하며 주변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15]. 또 가족과 지역사회, 사회속의 의미 있는 사람들과 즐겁게 연계를 가지는 자기 충족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16].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자기주권과 정치적·경제적 권익, 자기결정, 책임 요소가 전제되어야 한다[17]. 이런 의미에서 이혼여성의 자립 또한 타인에게 심리사회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거나 종속되지 않으면서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 타인과의 협력, 의사소통 능력,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능력, 사회적 자원 활용 및 관계 형성 능력을 통해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자립역량을 형성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14][16][17].

하지만, 지금까지 이혼여성의 삶의 경험과 관련해서는 자립 보다 주로 적응의 개념을 활용해왔다. 적응은 일정한 조건이나 환경에 맞추어 잘 어울리는 것을 의미한다. 즉 스스로 서기 이전에 주어진 환경에 맞추도록 자신과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획득해야 하는 것이다. 과거에 이혼 적응은 재혼 혹은 전배우자와의 접촉이나 정서적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18]. 하지만 최근에는 독립된 정체감을 확립하고 적절한 역할 수행 능력을 획득한 것, 그리고 이혼 전의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이혼관련 상실감을 극복하며, 이혼을 수용하고 자기 변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16]. 이런 의미에서 적응은 자립과 유사하면서 상호불가분의 순환적 관계에 있다. 그리고 이 정의에 비춰보면 자립은 이혼과 관련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혼 후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에 맞추어 살아가는 적응의 과정을 통해 독립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혼이 매우 심각한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생활사건인 만큼 학자들은 자립보다 적응과 관련된 요인들을 규명해왔다. 지금까지 밝혀진 적응 관련 요인 들로는 연령과 결혼기간, 가족구조, 이혼 이후의 기간, 경제적 요인, 이혼제안자, 사회적 활동, 사회적 지지, 전배우자와의 관계, 성역할 태도 등이 있다[20][21]. 이중 결혼기간을 보면, 기간이 짧을수록 이혼 후 적응기간이 짧고 적응 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결혼기간이 짧거나 연령이 낮으면 결혼제도에 덜 익숙

해져있기 때문에 이혼 이후의 새로운 생활로 이전하는 것이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 반면, 오랜 기간 동안 사회·경제적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의존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진 여성은 이혼을 아내 혹은 어머니로서의 역할 상실로 동일시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한다. 이들은 한편으로는 경제적 자원이 적어진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독신의 삶에 대한 불안감과 외로움을 크게 인식함으로써 정신·신체적 질병에 노출되는 경향이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5][22-24]. 그러나 이혼 여성의 연령과 결혼기간이 적응의 문제와 특별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어[25], 그 상관관계는 아직 입증되지 않은 가설에 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녀 수 또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경우에는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또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적응하기 어려우며, 특히 모자(母子)관계로 형성된 이혼 가족은 모녀(母女)관계로 형성된 이혼 가족보다 적응이 좀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6]. 그러나 자녀의 존재가 반드시 이혼자의 적응과정에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자녀가 이혼한 부모의 적응을 위한 자원으로서 기능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자녀들이 경험하는 경제적, 정서적인 스트레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자식들이 제공하는 원조나 지지, 그리고 자녀가 부모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데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지만[24], 사실 부모가 함께 생활하는 자녀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것은 이혼 이후의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7][21].

사회경제적 지위 또한 이혼 후 적응과 관련이 있다. 이혼 후 경험하는 사회·경제적 문제는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경제적 스트레스 면에서 이혼 전보다 더 많은 타격을 받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은 계층을 망라하여 나타나고 있다. 오히려 과거에는 이혼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주로 빈곤한 가족에게서 나타났지만, 최근에는 중산층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심리적 박탈감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것은 경제적 요인이 이혼여성의 심리·정서적 상태를 통제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27]. 그러나 같은 경제적 조건이라 할지라도 이혼자의 경험과 반응의 메커니즘은 상이하다. 이것은 이혼 과정에 적응하는 방식이나 그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르고, 또 경제적인 문제는 개인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는 어려운 사회구조적인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이미 자립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10명의 이혼여성을 대상으로 이혼 원인과 이혼 전후의 삶의 경험, 이혼 이후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의 경험, 차별과 배제의 경험, 그리고 자립 및 적응 경험, 자녀양육 경험을 중심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먼저 연구 참여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이혼이 성립된 여성으로서 현재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이혼 전보다 높은 여성들을 선정하였다. 이혼적응 및 수용의 지표가 되는 생활만족도가 과거보다 높은 것은 이혼 자립의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립의 개념범주에 경제적 자립이 포함되므로, 이혼 초기에 공공부조를 받았다 할지라도 면접 시점에는 공공부조 대상자가 아니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을 선택하였다. 셋째, 참가자 스스로 자립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조집단의 경험이 있는 여성을 선택하였다. 공동체에의 참여 기회나 경험을 갖는 것은 사회적 관계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이혼적응의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킨 연구 참가자들의 연령은 대부분 40대였으며, 동거기간은 5년부터 13년까지 분포되어 있었다. 자녀는 1명에서 4명까지이며, 대부분 1, 2명이며, 학력은 대부분 대졸(초대졸 포함)이었다. 직업은 매우 다양하였고, 직업지위는 정규직 6명 비정규직 4명으로 나타났으나 고용보험 가입에는 모두 가입되어 있었다. 그리고 현 주거상태는 임대주택이 4명, 전세 2명, 자가 4명으로 나타났다. 연소득은 1500만원부터 5000

만원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평균은 약 2,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양육비는 대부분 받지 않고 있었으며 받는 경우도 비정기적이거나 20-30만원의 낮은 금액이었다.

참가자들은 평균 약 9년의 결혼 기간을 경험하였으며, 대부분 전배우자들이 결혼기간 동안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않았거나 전배우자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및 정신건강의 면에서 취약한 경우가 많았다. B와 H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알코올 문제를 보였고, E는 도박에 심취했으며, 게임중독과 무기력과 무능력 등의 문제를 보였다. 전배우자의 이와 같은 문제가 결혼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인지 혹은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지만,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이 소극적이고 회피적이었으며, 이런 특징이 부부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에서는 한부모 가족의 자립경험을 탐색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정보와 이혼 이유, 원 가족과의 관계, 사회경제적 자립 상황과 사회적 인식 등에 관한 개방적 질문을 중심으로 구성된 면접계획서를 활용하였으며, 이 외에도 맥락에 따라 유연하게 면접 항목들을 추가하여 진행하였다. 피면접자는 한부모 가족 관련 단체와 지인을 통해 눈덩이 표집 과정을 통해 모집하였다. 이렇게 모집된 참가자에 대한 심층면접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의 동의를 거쳐 모두 녹취한 후 개방코딩과 개념화, 범주화, 분석과 해석의 단계로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단계에서는 Strauss Cobin의 지속적 비교방법을 활용하여 사례별 분석 후 사례 간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자료는 개방코딩과 개념화, 개념 간 유사성과 차별성을 고려한 범주화 이후 분석과 해석을 시도하였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약

참여자 (연령)	동거 가족	학력	이혼(세) 동거기 간(년)	직업	이혼원인	이혼전 경제 활동	주거	연 소득 (만원)
A (42)	딸1	대졸	39세 (9년)	보육 교사	성격차이, 가정 돌보지않음, 폭 언	텔레마 케터	공영 주택	1,810
B (47)	딸4 23,20, 15,11	초대 졸	42세 (13년)	정수기 팀장	괴음, 폭음, 가 정돌보지 않음, 알 콜중독	안경사	주공 임대	3,000 (성과 급)
C (41)	딸2, 10 아들 8	대졸	37세 (9년)	피아노 강사	성격차이, 신체적 폭력	피아노 강사	자가	1,600

D (45)	19세	대졸	31세 (5년)	NGO	도박			임대 주택	2,300
E (44)	딸13	대졸	37세 (6년)	보육 교사	성격차이, 가정 돌보지않음		마케팅	전세	2,000
F (44)	아들 14	대졸	37세 (9년)	교사	부채, 도박		교사	전세	4,800
G (42)	딸15 12	고졸	33세 (6년)	회사원				임대 주택	1,800
H (51)	딸 23 아들19	고졸	2008년 2월	텔레마 케터	정신건강, 무능 력			전세 자가	1800
I (55)	아들 20	대졸	2003년 (13년)	번역, 판매임 시직	폭력, 경제활동 안함		번역	자가	1500
J (39)	아들 10	대졸		여행사	부채, 외도			자가	5,000

IV. 연구결과

1. 이혼초기 경험한 복합적 어려움

본 연구 참가자들은 대부분 이혼청구자로서 협의이혼을 했다. 하지만 이혼 초기에 심리정서적으로 우울감에 시달리거나 위축되는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였다. 이들은 이혼 초기에 배신감과 좌절감, 자신감 없음, 위축감을 경험했으며, 부모와 자식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정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B는 결혼생활에 대한 회의감으로 우울증을 앓아 대인기피증이 심각해지는 상황을 겪었으며, D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위장장애를 겪었다. 이 외에도 결혼기간 중 노출된 각종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문제로 적응과 자립의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이렇게 심각한 심리·정서적 디스트레스를 겪은 이유 중 하나는 자녀의 정서적 어려움과 돌봄 문제와도 관련이 있었다. 이혼에 이르기까지 부부갈등에 노출되었던 자녀들은 상당한 심리·정서적 불안감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B의 경우, 자녀가 먼저 이혼을 권유한 사례이지만, 부모의 이혼 이후 부부갈등에 노출되고 목격한 자녀들이 그 후유증을 경험하면서 심리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D도 본인의 심리사회적 어려움이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자녀가 수차례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G는 자녀가 학교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여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았다. 또 자녀들이 학교에서 가족에 대한 기초조사나 양부모가족 중심의 교과목 활동으로 인해 상처를 겪었다.

이와 같이 자녀가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홀벌이로서 가계와 자녀양육을 모두 책임져야 하

는 상황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했다. 자녀의 힘든 상황을 돌봐줄 새도 없이 장시간 일을 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자녀에 대한 미안함과 죄스러움이 증폭되고 다시 적응 및 자립이 지연되는 악순환을 겪었다.

이러한 복합적인 어려움은 참가자들의 직업경력 단절로 새로 일자리를 찾거나 직업 훈련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자녀를 돌봐주는 보육시스템이 미흡하고 또 보육료 지원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과 맞물려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다. 게다가 일부 참가자들은 전배우자의 빚까지 떠맡은 상황이어서 이혼 초기에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또 결혼기간동안 계속 일을 한 경우도 텔레마케터나 일반 사무소 사무직, 피아노 강사 등 비정규직의 저소득군에 속하는 특징이 있었다.

경제적 어려움은 주거비로 인해 더욱 가중되었다. 보통 주거문제는 이혼하면서 정리하게 되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통해 해결되지만, 본 연구 참가자들은 이런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했다. 또 이들이 이혼한 당시에는 저소득 한부모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미흡한 상태였고, 주거비와 보육료 지원도 부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을 해도 빚이 늘거나 제자리인 상태를 경험했다.

이렇게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구 참여자들은 이혼 초기에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 및 접근성 면에서 매우 제한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 된 이후 어떤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격요건을 되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였으며, 이런 정보를 접하기까지 1, 2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교육부터 취업까지 원-스톱 서비스(one-stop service) 및 사후관리, 주거복지, 양육비 청구 지원, 아동 돌봄 서비스, 심리치료 등 다양했지만, 일부만이 생활보호, 의료서비스, 아동부양수당, 상담, 어린이집 정서지원 정도를 이용하였고, 가장 필요로 한 자녀의 심리·정서적 어려움과 관련된 서비스 및 관련 정보는 전무한 실정이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별과 연령의 차별과 가족유형으로 인한 차별에 직면했으며, 결국 새로운 자격과정을 이수하여도 직업이 하향화되는 경험을 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이혼초

기의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스스로 자립하였다고 할 만큼 안정적인 상태에 이르렀다. 이들이 자립하기까지의 경험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2. 자립 경험

1.1 이혼수용과 자아통제력 발휘

① 이혼 사실의 인정 및 수용

일반적으로 이혼을 청구한 사람이 상대방에 비해 이혼적응이 좀 더 빠르고 수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혼사실에 대해 전혀 후회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혼사건 이전에는 다양한 정서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 참가자들은 이혼에 대한 양가적인 감정을 경험했지만, 자신의 이혼에 대해 성찰하면서 후회보다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상담과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전배우자의 입장을 이해하기도 하고 이혼 후 자신의 변화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였다.

이혼하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자기 이기적인 게 있는 데요 내가 하고 싶은 공부할 수 있고 내가 남편이 있어서 집에 빨리 가서 집안일을 돌봐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이만 케어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유롭다고 생각하거든요.(E)

이런 이혼 수용은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구직과정에서 솔직하고 당당한 대처를 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혼이 자신의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혼사실을 당당히 말하였으며, 한부모이기 때문에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솔직히 말하고 업무조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처음부터 다 얘기 하고 그래서 그런지 거짓말을 하면 계속 거짓말을 해야 돼서 그런 게 힘들어서 그냥 저 이 얘기해요.(G)

② 자기 관리 철저: 시간과 대상에 대한 통제력 발휘

본 연구 참가자들이 자립하기까지는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으며, 모두 심리·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

에 봉착했었던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자립과정에서 자아 통제력을 행사하였다는 점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자아 통제력(self-control)은 자신의 내면, 행동,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 자신이 통제권을 갖고 있다고 믿는 믿음이며, 자아통제력은 이를 실천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통제의 대상은 과거와 현재 등 시간적 측면과 결과, 행동, 과정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참가자들은 행동과 과정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과거 사건에 해당하는 결혼 및 이혼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도 자아 통제력을 발휘하였다. B는 이혼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것이었으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신념을 갖고 있었고, C와 I는 힘든 일이 있어도 최대한 스스로 하려고 노력했으며, I는 남한테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자기 효능감을 인식했으며, A와 H 역시 원 가족과 형제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주어진 한도 내에서 생활하려고 노력했다.

위낙에 제가 생활 자체를 수의 내에서만 생활한다는 부분이 배어져 있어요 제가 돈 없이 결혼 전부터 살았잖아요 그래서 없으면 안 쓰고, 어떨 땐 뭐, 없으면 학원도 딱 끊는단든지. 어쨌든 수의 범위 내에서 살아야 한다는 게 되게 전 강한 거예요(H)

③ 전배우자와의 관계 정리 및 새로운 관계 정립

한부모들의 자아통제력은 전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나타났다. 이혼에 대한 유책자로서 전배우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미래를 위해 자녀와 전배우자 간 관계를 개선하고 재정립하고자 노력했다. 비록 자신은 전배우자와 교류를 하지 않지만, 자녀의 상실감과 정서적 불안정문제에 대한 염려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뒤로하고 자녀와 전배우자 혹은 시댁과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또 결혼기간 동안 자녀들에게 노출된 부부갈등 때문에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갖고 있는 것이 대인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

하고 자신의 이혼과 전배우자에 대한 정서와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리하여 사고함으로써 전배우자와 자녀 간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였는데, 이런 생각과 태도는 자녀들과 전배우자 간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어차피 그 사람도 아빠임이 확실하고 부모가 따로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너희들 때문에 미워하는 게 아니다 하고 아빠를 보여주니까 애들도 좋아지는 것 같고. 마음이 편해요 (B)

아이한테는 부모의 이혼이 어떻게 보면 그 아이가 결혼 했을 때까지 미칠 수밖에 없는 영향력이잖아요. 롤 모델이 있어야 아빠를 보고 아빠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그게 학습이잖아요... 저도 굳이 그 사람이랑 원수 질 필요가 없고 서로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요청도 하는 거죠 (D)

1.2 삶을 향한 도전과 반복의 원천으로서의 자녀

① 자녀 앞에서는 당당하고 믿음

한부모들은 자녀에게 본보기가 되고 자녀와 함께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했다. B는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타인과의 만남을 회피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지만, 자녀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원하였기 때문에 고통스런 직장생활을 견뎌냈다. 또 E는 부모의 이혼으로 상처받는 자녀가 자신감 있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모델을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일에 임했다. H는 손이 절단되어 장애를 갖게 된 상황에서도 수급자가 되지 않고 스스로 일을 하여 가계를 꾸려나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 자녀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하려고 노력했다.

한 부모들은 에너지가 어디서 생기냐면 자녀들이 잘 될 때 생기거든요.... 사실은 아이가 세상에 없으면 무엇이 의미가 있어요 아이랑 살아도 아이가 힘이 된다는 것을 처음부터 느끼고 가는 것과 나중에 처처럼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느끼는 것 하고는 다르잖아요(D)

이들이 이혼 초기에 심리·정서적으로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임에도 이렇게 대처한 것은 무엇보다 자녀에게 자신감 있게 삶에 대처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상처와 삶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려는데 있었다. 이런 긍정적 에너지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노력은 참가자들과 자녀들 간에 긍정적이고 호혜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② 자녀양육과 교육에 최선을 다함

한부모들은 생계를 위해 경제활동에 우선순위를 두면서도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았다. 자녀의 정서적 문제를 돕기 위해 스스로 상담센터를 찾아다니고 유사한 문제를 겪는 어머니들의 모임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으며, 자녀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심리·정서적 치료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또 자녀들과 함께 한부모자조모임, 복지관 프로그램 등에 참여함으로써 자녀들이 유사한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과 교류하고 자신감을 얻도록 도왔다. 이 외에도 남들처럼 사교육을 시킬 수는 없어도 재능품앗이 집단을 형성하여 서로 학습을 보충할 수 있도록 했다.

한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관심을 쏟은 것은 무엇보다 부부갈등과 이혼으로 상처를 받은 아이들과의 관계 회복이 이혼의 이유이자 이혼 이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우선순위였기 때문이다.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ADHD 그런 모임 찾아가는 모임도 만들어서 만나고, 상담센터도 많이 가보고,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많이 환경을 하고, 저 아이를 잘 키워 보자고 제가, 그, 예술심리치료 수업도 받고, 아이를 이해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제가, 그, 예술심리치료 수업도 받고, 아이를 이해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아이 큰 아이 어렸을 때부터. 그러다보니까. (C)

1.3 다양한 직업 경험과 탐색을 통한 전문성 확보

본 연구 참가자들이 이혼초기의 심리 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립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무조건, 닥치는 대로 일을 하였고, 매우 다양

한 직업을 경험하였다는 점이다. A는 학교 급식담당, 보육교사 도우미 등 당장 돈이 되는 각종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으며, B는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코디라는 새로운 분야의 일을 시작했다. 또 I는 번역을 하면서도 캐서, 복지상담 보조, 매장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부업을 겸했으며, D는 텔레마케터, 공인중개사, 보육교사를 경험했으며 사회복지사 과정을 이수했다.

이들이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경험한 것은 한편으로는 그 만큼 전문성이 부족하고 또 이혼 후 당면한 삶의 현실이 척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 직업경험 및 이력이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대한 두려움이 덜하였다는 점도 작용했다. 즉, 대부분 결혼 전에 직업을 가졌던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혼 후 구직을 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다. 물론 본 참가자들 중 절반은 결혼기간 중 직장을 그만둠으로써 한국사회 기혼여성의 전형적인 패턴인 M자 곡선의 V곡에 포함되는 경험을 했다. 그러나 이들의 과거 직업경험과 이력은 이혼 이후 구직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때로는 이전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관계망을 제공했다.

인쇄소 같은데서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해가지고 디자인, 명암, 팜플렛 그런 것도 한 5개월 정도 배워봤고요 친구가 인쇄소 하나까 이런 거 배우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컴퓨터 작업이 원활하지 않으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고 식당에서 시간제로 일했어요.(B)

솔직히 많이 해봤어요. 30중반부터 정말 많이 해봤는데 쉽지도 않고 뭐 한 가지 일을 자격증도 따고 여러 가지 시도도 해보고 했는데 쉽지도 않고 일단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사실 미용사 자격증 따 지도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되거든요 10년이 넘는 것 같네요 우리 오래 하다 보니까 다른 거에는 좀 힘들고 그 다음에 자격증도 땀어요.(G)

연구 참가자들 중 보육교사나 교사, 디자인편집 등

전문성을 갖춘 직업경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경력단절로 인해 다시 구직을 할 때에는 비정규직에 종사하게 되었으며, 수차례 이직을 경험하면서 전문성과 자격에 대한 절실함을 인식했다. 그리고 이들은 생계를 위해 꾸준히 일하고 또 좀 더 소득이 높은 일자리를 찾으면서도 전문직업으로 진입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자격증을 이수하는 과정을 준비하고 진입했다. 사이버 강의를 듣고, 취업성공패키지를 알아보고 컴퓨터를 배웠으며, 검정고시를 취러 고등학교 자격을 취득하는 등 한걸음 한걸음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인적 자산을 쌓아갔다.

처음에는 결혼 전에 일했었던 전화교환이었는데 보수가 적어서, 보수를 더 많이 받기위해서 텔레마케터 교육을 받고 전화로 하는 영업을 했었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조금 더 전문직을 가져보자 하고 시작한 것이 공인중개사 공부였어요. 생각보다 수입이 되지 않아서 그만두고 새벽에 우유배달도 하고 했는데.. 경력단절 취업성공 패키지를 해서 재개발지역 쪽에 사무직으로 취업을 해서 3년 정도 근무했어요. 근데 거기도 청산을 하고 거기서 보육교사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보육교사로 일을 하다가 사회복지사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D)

1.4 사회적 지지(망)의 구축과 확보

① 원가족의 이혼승인과 지지 확보

한부모들은 이혼 후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경험하였지만, 원 가족으로부터는 정서적·도구적 지지를 받았다. 원 가족은 자녀의 이혼에 대해 반대의를 표하지 않았으며, 늦은 시간 혹은 출장을 갈 때 손주를 돌봐주거나 여행을 갈 때 손주를 데려가 주는 등 다양한 차원에서 지지를 제공했다. 또 몰래 집을 방문하여 청소를 해주거나 쓰레기를 치워 주는 등 정서적으로 지지를 해주었다. B는 이혼 후 4명의 아이들과 함께 언니 집에 살았으며, E는 아들과 함께 부모님 집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일부는 함께 동거를 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해주었고 자녀들 옷을 사주거나 집을 구할 기초자금이 없을 때는 자금을 융통해주기도 했다.

사실 이와 같은 원가족의 지지는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많은 원가족이 자녀의 이혼을 부끄러워했으며 가문에 오점을 남긴 것으로 인식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원가족이 다양한 측면에서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이혼적응 및 자립을 돕는데 일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큰 도움이 되요. 얼마 전에도 가족 여행을 가는데, 항상 부모님 모시고 항상 동생하고 이렇게 팀이에요. 같이 가면은 제가 다리를 다쳐서 못가니까 할아버지는 아직 건강하시고, 할아버지가 다 데리고 다니시고 돌아다니시고 그러는 부분이, 그리고 얼마전에 자전거 화성 따라 자전거 타고 있었는데 그 때도 할아버지가 데리고 갔다 오시고(C)

동생이 좀 많이 도와주었죠. 그때 동생이 결혼하기 전에 같이 살면서 생활비나, 애 옷이나 신발이나, 제 옷들이나 거의 동생이 많이 해주었죠. 친정에서도 좀 도와주시고도 하셨죠(F)

② 한부모자조모임의 지지 망 확보

본 연구 참여자들은 자립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자조모임에 참여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건강지원센터나 지역사회종합복지관, NGO단체의 한부모자조모임, 선교회의 자조모임, 한부모 협회 등에 참여하면서 동병상련의 아픔을 공유하였으며 한부모로서 애로점을 느끼는 자녀양육과 관련된 부모교육을 받거나 상담지원을 받았다. 또 자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활동에도 참여했다. 자녀들이 상담을 받거나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게 하여 심리·정서적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하였다. 또 단체 모임에서 자녀들에게 여가활동과 문화적 체험의 기회를 갖도록 하고 형제애, 자매애를 느끼도록 해줌으로써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도록 하는 도움을 받았다.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우리 애가 사춘기 같은 그런 것들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했거든요. 우리 아

이는 굉장히 심했고 막 죽고 싶다는 얘기를 밥 먹듯이 하고... 동생도 맨날 죽여 버리고 싶다고 하고 재는 지구에서 아예 떠나 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을 해가지고 되게 많이 걱정이 많이 됐었고.. 근데 거기 배운 대로 집에 와가지고 써먹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니깐 저도 너무 감사한 게 (G)

이와 같은 한부모자조모임의 경험은 참여자들에게 심리사회적 힘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초기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어서 가게를 이끌고 자녀를 돌보는데 급급했던 이들이 사회적 지지망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는 나도 누군가를 돕겠다는 힘을 갖게 된 것이다. E는 자신이 도움을 받은 것처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어려운 한부모들을 돕기 위해 단체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으며, I는 리더 역할을 담당했다. 또 F는 공부를 하여 다양한 삶을 이해하고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했고 D는 한부모 공동체 혹은 사회적 기업을 통해 좀 더 많은 한부모들에게 힘을 주기를 원했다. 이와 같이 이들이 개인적 어려움을 안고 한부모자조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힘을 갖게 된 점은 이들의 적응과 자립의 또 다른 면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한 부모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은 게 1차적인 거고, 또 공부를 통해서 다양한 삶에 있는 분들하고 다양한 사회의 모습을 보는 것도, 관계를 맺는 것도, 이후의 삶이 좀 풍요롭지 않을까.(H)

나 혼자 벌어먹고 사는 것 보다는 정말 많은 한 부모들이 아우러져서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대안을 모색하고 싶은 게 제 바람이거든요.(D)

③ 지역사회 원조를 통한 지지망 확보

한부모들은 지역사회로부터 지원을 받기도 했다. B는 성당에서 수년간 후원금과 장학금을 지원해주었고, C도 성당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성당에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도 꾸준히 한 달에 십만원씩 도와주시고, 신부님이 추천 올려서 2년 동안 20만원씩 꾸준히 받아왔고 한 번씩 신부님이 큰 행사 끝나고 나면 우리아이한테 장학금을 주신다면 지, 그때그때 살아갈 만큼 죽지 않을 만큼 됐어요. 요즘은 성당도 사회 속에서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해서 아이만 많이 낳는 게 아니라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게 많이 되어 있어서.(B)

1.5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의 활용

① 주거비 절약을 위한 임대주택 활용

참여자들은 대부분 이혼할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 이들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거의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결혼기간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F나 B와 같이 친정에서 거주지를 내준 경우 외에는 대부분 월세부터 시작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혼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현재와 같이 어느 정도 경제적 안정을 이룬 데에는 무엇보다 임대주택이 큰 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보다 LH나 SH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이들에게도 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가 주어졌고, 이로 인해 관리비를 절반 이상 줄였으며, 1-2년마다 전월세 보증료를 올려주어야 하는 부담감이 줄었다. 이로 인해 상당한 정도의 주거비 지출을 줄일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월세에서 전세로, 그리고 자가로 집을 옮기면서 자립기반을 쌓을 수 있었다.

주거는 사실 저희 지금 임대아파트로 이사 온지 2년 반 3년 정도 됐거든요? 그 전에는 재개발 지역에 살았어요. 그 지역에 살면 임대아파트 입주권이 나오니깐 여기 재개발 임대아파트 들어오면서 SH 공사? 거기서 기금 대출해가지고 제가 전세로 들어왔거든요. 월세 내는 것 보다 이자가 훨씬 저렴하니까 나는 거예요. 15년 동안 갚으면 되니까.(G)

② 복지서비스의 활용

연구 참가자들은 이혼 전에는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에 대해서도 조금씩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

하기 시작했다. 결혼기간 중에는 복지서비스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았고, 또 실제 활용할 기회도 없었다. 하지만, 한부모라는 지위를 갖게 된 이후 소득이 이전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생계가 막연해지면서 자녀의 급식과 의료비, 문화비, 주거비 등 구체적인 서비스를 하나 하나 이용했다.

이혼 이후 초기에는 한부모 가족에게 주어지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여 얼마간 동안은 원가족의 도움에 의존하기도 했지만, 복지관이나 지인을 통해 하나 하나 알아가면서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활용했다. 특히 자녀와 관련해서는 이전처럼 다양한 지원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자녀의 급식문제나 문화복지, 의료복지 등 공적 서비스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활용했다. 이것은 단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동안 자녀들이 안전한 곳에 머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성이 더하였다.

한 부모들은 여행을 많이 못 가거든요 자신이 당한 그런 게 있으니까 우울해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위로 받았어요 저희끼리 아이들 데리고 단체로 가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위로받고 또 저희가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 주셨어요 합창도 하고 사물놀이도 하고 기타도 하고 하모니카도 하고, 이렇게 선생님을 세우셔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같이 활동하고 공동체 생활을 같이 하니까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I)

1.6 중장기적 목표 수립과 미래 설계

① 미래 설계와 중장기적 목표 수립

본 연구 참가자들의 자립과정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 중 하나는 어떤 상황에서든 목표를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혼 초기에도 향후 몇 년 후의 목표를 설정했고, 또 현재도 그러했다. 부채 때문에 경제적으로 암담한 상황에서도 빛을 언제까지 갚고 집을 언제 전세로 옮길 것인지,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떻게 저축을 할 것이며, 자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꾸준히 고민하고 미래를 설계했다. 그리고 이런 미래설계와 목표설정으로 이들은 희망과 꿈, 그리고 작은 성취감을 경험했다.

제가 공동체 대안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고 받은 것을 다시 돌려준다는 의미에서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한 부모 가족 자립을 위해서 그런 것을 꿈꾸고 있는 거죠 공동체에서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으로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싶은 거죠 (D).

저는 공부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대학에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밤에 학원 다니면서 직장 가까운 대학에 들어가게 됐어요 낮에 일을 해야 하니까 야간을 다녔어요(I)

② 평생교육 및 진학을 위한 꿈과 희망 견지

본 연구 참가자들은 공부를 계속하고 싶어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돌봄 분야에서 좀 더 전문성을 갖추기를 원했다. 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자조모임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접한 만큼 보육이나 사회복지분야의 대학원 진학을 통해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타인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 했다. 이들이 학업을 지속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현재의 자립에 이르기까지 '삶'의 과정과 노력이 매우 유효하고 또 중요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모르던 정보를 수집하고 또 적용하고 활용하면서 자신감과 자부심을 느꼈으며, 나아가 이혼 전에는 갖지 않았던 자격증을 하나하나 취득해가고 이것으로 인해 직업을 갖게 되면서 계속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했으며, 가난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위안을 얻었던 것이다. 이런 이유로 A와 F, H, D 등 많은 참가자들이 진학을 계획하고 있었다.

공부는 좋은 것 같아요 직업에 많이 도움이 되요 나는 공부를 다 했어 하면서 놓는 게 아니고 공부는 끝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상황은 원장님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공부는 계속 할 거예요(F)

일단은, 이 직장에서 앞으로 5년간은 잘 다녀 보자가 일단 첫 번째 목표예요. 제가 55세까지는..그래서 내년에 이제 사이버대학에서 상담심리학과를 진학을 하려고 해요(H)

③ 저축을 통한 꿈과 비전 실현 전략 수립 및 실천
본 연구 참가자들은 작은 돈이지만 매달 저축을 하고 있었다. 정부에서 저축한 액수만큼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목돈을 만드는 프로젝트에 가담함으로써 앞으로는 지금보다 나아지고 자녀 대학등록금을 충당하고 좀 더 나은 집으로 이사하려는 계획의 초석을 다지고 있었다.

이런 저축 행위는 한부모들의 경제 상태와 고용에서의 변화, 그리고 생활만족도를 예측할 수 있는 주요한 지표중 하나이다. 단지 저축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액이라 할지라도 경제상태 및 고용에서의 안정성이 증가하는 경우 저축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또 저축을 하게 되면서 사회활동의 증가 및 생활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19].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 참가자들이 '희망 키움' 통장에 저축을 하고 창업이나 진학, 주택 마련 등을 계획하는 것은 그만큼 생활의 안정성이나 만족도가 높아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금 '희망 꿈 키움' 통장이 있는데 자기가 적립한 금액에 일대일 매칭을 해줘서 자립을 도와주는 시스템인데 (D)

예전에 희망플러스 통장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3년 만기가 돼서 아직 신청은 안했는데 있거든요 근데 그거 천오백밖에 안돼요 막상 창업을 하려고 알아보니깐 5천만 원으로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물어두고 나중에 주택으로 보증금이 올라갈 수 있으니깐 일단 내버려 뒀거든요 그 다음 자격증 따고 이것저것 공부도 해보고 저 '내일 배움 카드'도 만들었어요 요리 배우려고... '내일 배움 카드'로 뭐 되나 내가 할 수 있는 걸 체크하는 거죠(G)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이혼한 여성 한부모들의 삶의 경험과 자립 경험을 탐색함으로써 이혼 이후 자립하는데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파악하고, 한부모의 자립 및 적응을 돕기

위한 사회복지실천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미 자립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10명의 이혼여성을 대상으로 이혼 원인과 이혼 전후의 삶의 경험, 이혼 이후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의 경험, 차별과 배제의 경험, 그리고 자립 및 적응 경험, 자녀양육 경험을 중심으로 심층면접을 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 참가자들은 전배우자의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태도와 좋지 않은 정신건강 문제로 이혼을 하였으며, 이혼을 할 때에는 스스로 청구하여 협의이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혼 초기에는 우울감에 시달리거나 위축되는 정서면에서 위기를 경험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중년기의 상실 경험이 생애 큰 위기로 경험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28]. 또 자녀 또한 부정적 정서와 행동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녀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부재,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였으며, 구직과정에서 이혼여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그간 제기되어온 한부모가족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정책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본 연구 참가자들은 이혼 당시 초등학교 졸업에서부터 대학 졸업까지 매우 다양한 학력분포를 보였지만, 현재는 대부분 대졸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는 특징을 나타냈다. 또 결혼 전에 직업경험이 있고, 결혼 기간 중에도 경제활동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직업경험이 결혼 기간 동안 단절되었다 할지라도 이혼 이후에는 구직 및 고용유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기에는 구직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혼 전 직장으로 복직하거나 혹은 새로운 직업을 갖고도 고용을 유지하는 경향이 뚜렷한 것이다. 고용상태에서도 지속적으로 직업관련 정보를 탐색하고 진학을 하거나 자격증 과정을 이수 하는 등 계속 교육과정에 진입하려고 노력했다. 또 이혼 후 자녀양육 및 주거 지원 등에서 원가족의 지지를 받거나 한부모자조모임을 통한 공동체 지지를 활용한 것도 이들의 자립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지지가 탈빈곤 의지를 매개하는 효과가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9].

이와 함께 본 연구 참가자들에게서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보다 이혼 수용과 강한 자아통제력, 그리고 자기-역량의 강화였다. 이들은 자신과 자녀의 상실을 분리하고 자녀와 전배우자 간 관계를 유지하도록 허용했고 그 맥락 속에서 자녀양육 및 훈육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갖고 자녀와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경제적 소비 면에서도 처한 상황에 맞게 생활하는 것을 철저히 준수하고자 했다. 즉 간혹 어려움에 봉착해도 원가족을 포함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빚을 지지 않았으며, 주어진 한도 내에서 삶을 견뎌냈다. 그 과정에서 자녀에게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안타까움과 슬픔, 미안함이 컸지만, 결국 이런 정서를 인내하고 삶의 원칙을 지켜냄으로써 자립을 이루었다.

나이가 참가자들은 경력이 단절되고 사회적·경제적으로 비밀 곳이 없는 상태에서 홀로서기를 시작하면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도전하고 또 학습기회를 접하면서 스스로 자기역량을 강화시켜나갔다. 초등학교 졸업에서 대학 졸업의 학력으로, 그리고 무자격증에서 다양한 자격을 이수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직업경력을 쌓아갔다. 이런 자기역량의 강화는 단순히 현재 가계를 감당하기 위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꿈을 갖고 미래를 설계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것은 김 순남(2009)이 여성의 이혼은 자아상실의 회복이며, 새롭게 자신을 찾는 여정이라고 해석한 것과 연관된다. 즉, 자립한 이혼여성의 경험을 통해 결혼 후 경력이 단절되고 미래를 설계하지 못했던 참여자들이 스스로 가족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임파워먼트 되고 자아를 회복하며 재구축해가는 과정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혼여성의 자립경험에서 자아와 환경에 대한 통제력과 자기역량 강화, 그리고 자기개발 및 자아의 회복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본 연구 참가자들 모두 원가족의 이혼 승인과 사회적 지지를 경험한 점도 특징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학교와 직장에서 한부모 가족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 그리고 차별이 잔존하지만, 이혼여성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원가족의 승인이다. 이런 점에서 이혼 및 한부모 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불인정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가장 친밀한 사람들로부터 이혼승

인을 받고 그에 따른 환경의 변화로 인한 사회적 지지가 이루어진 것은 이들의 자립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된다.

또 한부모의 자조모임 역시 본 연구 참가자들에게 심리정서적지지 외에 정보제공, 자녀 돌봄의 제공, 부모교실 운영, 그리고 여행과 자녀를 위한 여가 문화프로그램의 제공 등 도구적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적응과 자립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혼초기에 부모의 이혼으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 및 모임이 매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자조모임의 소속감, 유대감 및 임파워먼트의 긍정적 영향을 다시금 확인하는 결과로서,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많은 단체에서 한부모와 그 자녀를 위한 다양한 모임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이와 관련된 적극적 홍보를 통해 사회적 인식개선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들이 이혼 후 자립하기까지 부분적으로 복지서비스를 활용하였으며, 일부는 현재까지 주거복지정책의 일환인 임대주택제도를 활용하고 있었다. 참가자들은 이런 복지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을 관련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선택하며,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평가했다. 환언하면, 이것은 국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다는 것 이전에 스스로 선택권, 의사결정권을 활용하고 나아가 한부모로서 당당함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임대주택을 통한 주거안정이 자립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고려하여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 활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 서비스를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참여자들은 비밀 언덕이 없었던 이혼 초기에도 꾸준히 일자리를 탐색하고 중단기적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과 환경에 대한 통제력도 확보해 나가면서 자립에 이르렀다는 공통된 특징이 있었다. 여기서 중장기적 계획 및 목표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확신, 그리고 희망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저소득층 한부모들의 자립에 있어 희망이 매개요인

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서, 향후 이혼여성의 적응 및 자립을 도울 때 작은 단위의 목표 및 계획부터 하나하나 성취함으로써 희망을 만들어내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적 접근의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사례는 神原 文子 외, “싱글마ザーへの 社會的差別と排除、社會的支援に關する日韓比較研究 2014~2016に文科省科研費基盤研究B”의 연구 중 본 연구자가 심층 면접한 한국 사례임.

참 고 문 헌

- [1]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6.
- [2] S. B. Kincaid and R. A. Caldwell, “Marital separation: causes, coping and consequences,” *Journal of Divorce*, Vol.22, No.3/4, pp.109-127, 1995.
- [3] B. L. Bloom, S. J. Asher, and S. W. White, “Marital disruption as a stressor: a review and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Vol.85, No.4, pp.867-894, 1978.
- [4] E. Hethering, M. Cox, and R. Cox, “Long-term effects of divorce and remarriage on the adjustment of childre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Vol.24, pp.518-530, 1978.
- [5] S. J. Price and P. C. Mckenry, *Divorce, Family studies text series 9*. Sage Pub, 1988.
- [6] 성정현, *성역할태도와 이혼여성의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 [7] R. S. Weiss, *Marital Separation*, NY: Basic Books, 1975.
- [8] G. C. Kisson and M. B. Sussman, “Marital complaint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symptoms of mental distress in divor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44, pp.87-101, 1982.
- [9] 김은지, 황정임, *저소득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 지원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 [10] 송다영, 성정현, “근로빈곤층 여성가장 가구의 생활실태와 심리사회적 문제에 대한 연구,” *사회정책연구*, Vol.25, pp.81-106, 2006(8).
- [11] 김명희, *양육미혼모 모자가정 건강실태조사 결과 보고* 한국여성재단, 2014.
- [12] S. D. McLanahan and K. Booth, “Mother-only families: problems, prospects, and politic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51, pp.557-580, 1989.
- [13] 강철희, “시설보호아동의 자립준비 실태에 관한 연구: 퇴소를 준비하고 있는 아동과 퇴소 후 자립 지원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이화사회복지연구*, Vol.1, pp.170-219, 2002(3).
- [14] 김지혜, 조성희, “양육미혼모의 자립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Vol.18, No.2, pp.149-180, 2016.
- [15] 신해령, *시설청소년의 자립준비에 관한 연구, 청소년과 보육사의 인식비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16] 조규필, 정경은, “취약청소년의 자립준비도 분석: 두드림 프로그램 참여자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Vol.23, No.3, pp.267-292, 2016.
- [17] 남연희, 김영상, “지체장애인의 자립도와 자립생활을 위한 서비스 지원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 재활협회*, Vol.9, No.1, pp.81-110, 2005.
- [18] 송옥, *여성의 이혼 후 적응과정에 관한 근거이론적 접근*,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19] 윤상용·김태완, “장애인과 저축: 저축 결정요인과 고용상태 및 생활만족도 효과”. *장애와 고용*. Vol. 22(3), pp. 101-124. 2012.
- [20] 옥선화, 최세은, 권소영, 강유진,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의 사회관계망 지원에 대한 탐색적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Vol.22, No.1, pp.181-191, 2004.
- [21] M. Yu, “Divorce and culturally different older women: issues of strategies and interventions,”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Vol.21,

No.1/2, pp.41-53, 1994.

- [22] N. B. Fisher, *Exploratory study of how women changing during separation/divorce proces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94.
- [23] G. C. Kitson and H. J. Raschke, "Divorce research: What we know, what we need to know," *Journal of Divorce*, Vol.4, No.3, pp.1-37, 1981.
- [23] K. Bursik, *Adaptation to marital separation and divorce: a context for ego development in adult women*, Ph.D. Dissertation, Boston Univ., 1986.
- [24] K. Bursik, "Correlates of women's adjustment during the separation and divorce process," In *Women and divorce, men and divorce: gender differences in separation, divorce and remarriage*, edited by Volgy, S. S., The Haworth Press, pp.139-162, 1991.
- [25] C. R. Bienstock, *The effect of sex role attitudes on coping patterns in divorced single parent mothers*, Ph.D. Dissertation, New York Univ., 1988.
- [26] E. Hethering, M. Cox, and R. Cox, "Long-term effects of divorce and remarriage on the adjustment of childre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Vol.24, pp.518-530, 1978.
- [27] P. J. Smock, "The economic costs of marital disruption for young women over the past two decades," *Demography*, Vol.30, pp.353-371, 1993.
- [28] 김옥희, 김연경, "중년여성의 애착, 외상 후 성장 및 자기실현과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6, No.12, pp.507-517, 2016.
- [29] 이화명, 정원철, "한부모 빈곤여성의 사회적 배제감이 탈빈곤 의지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6, No.5, pp.760-772, 2016.
- [30] 성정현, "The Single Mothers' Experience of Self-Independence in Contemporary Korea," 제26회, 일본가족사회학회 대회, 2016.

저 자 소 개

성 정 현(JungHyun Sung)

중신회원



- 1998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문학박사)
- 2000년 3월 ~ 현재 :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 한부모가족, 미혼모가족, 여성복지